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마음 속에 들어가 위대한 스승과 찬란한 우주를 만나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0

채사장 지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수많은 지혜로운 스승도 이를 알고 있었다. 세계 속에 당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신 속에 세계가 있다는 진실, 세계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진실, 위대한 스승들은 이 깊은 합일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고자 했다. 이제 당신이 알려줄 차례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곳에서 찬란히 빛나는 우주의 본질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당신이 깨달은 진실을 당신의 입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위대한 스승들이 당신에게 그러했듯이." (본문 중에서)

인문학 도서 가운데 200여 만 부가 팔린 책이 있다. 인문교양 베스트셀러였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0'은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에 의해 이데아 사상이 2000년 가까이 이원론으로 이어졌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에 의해 예수의 부활과 죽음이 강조됐다. 책은 거대한 사상의 운곽을 더듬어볼 수 있도록 역점을 뒀다. 제목의 일부인 '제로'는 '모든 지식의 시작'으로, 사상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 오래된 고대의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이원론을 넘어 일원론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잃어버린 절반의 세계인 일원론의 세계, 그곳의 주인이 원래 당신이기 때문이고, 당신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곳은 깊은 어둠 속에 버려져 있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외부의 폭풍을 가라앉히고 내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판단금지 한 후, 내면의 가려진 대륙을 향해 발을 내디뎌 보자.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 깊은 곳에 출구가 있다고, 그 출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월필북-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지대넓얇'). 1권은 역사와 경제, 사회, 윤리 등을 다루었으며 2권은 철학과 과학, 예술, 종교 등을 아울렀다. 전자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절 대주의와 상대주의로 세계를 바라봤다.

1권과 2권은 양분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이원적 시각 이전의 일원적 '렌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밀리언셀러 작가 채사장이 마침내 3권을 펴내 눈길을 끈다.

그런데 책 제목은 3권이 아닌 0권(제로)으로 표기돼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기존의 '지대넓얇'이 이원론이 지배하는 세계에 초점을 맞췄던 비해 이번의 제로 편은 인류 사상사에서 중요한 지식으로 꼽히는 동양의 사상과 인물을 조명했다. 특히 '위대한 스승들'과 '거대 사상'은 이 책의 키워드라 할 만큼 핵심내용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스승들은 적지 않았다. 저자는 그 중에서 '축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한 현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 시기에 인도의 우파니샤드, 고타마 시타르타가 등장했고 중국에서는 노자와 공자가 활동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출현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아, 에레미야, 이사야가 활동했다. 그렇다면 위대한 스승들은 왜 축의 시대에 등장했는가. "자연에서 태어나 넓은 들판을 떠돌던 인류는 이 시점부터 거대한 도시에서 태어나 문화와 상징 체계 속을 살아가게 되었다. 도시 생활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혔고 경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폭력과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저자는 노자와 공자, 인도와 동양, 부처의 사상은 세속과 탈속의 균형에 있다고 보았다. 즉 '세계의 실체는 나의 마음이며 나의 마음을 통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허블망원경으로 본 우주. 우리는 너무도 큰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너무도 작은 존재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당대의 스승들은 자아와 세계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신비를 통찰했으며 이를 '범어일어', '노와 덕', '일체유심조' 등으로 규정했다. 서양 사상은 양대 산맥인 철학과 기독교에 포커스를 맞췄다. 저자에 따르면 철학

신영복 평전 최영목·김창남 지음



"선생은 감옥 20년을 전후로 각각 27년 여의 세월을 사셨습니. 전반 27년은 일 관되게 제도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살았고, 감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반 27년은 성공회대를 중심으로 '선생'으로 사셨습니. 감옥도 대학이라고 하시니, 결국 평생 학교에서 사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신영복 선생이 평생 거치신 학교에 관한 이야기기도 합니다."

신영복(1941~2016) 선생의 말과 글, 삶을 한 권에 갈무리한 책이 출간됐다. '신영복 평전-더불어 숲으로 가는 길'은 인간 해방을 이야기한 '사상가' 신영복에 관한 기록이다. 최영목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와 김창남 (사)더불어숲 이사장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신영복 선생의 동료이면서 후배이고 제자였다. 저자들은 선생이 별세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선생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 필요한 시점이며 가짜 뉴스를 분별해 낼 '팩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신영복을 가리켜 '우리 시대의 스승', '서예가'라는 수식어가 따랐지만 저자들은 신영복 선생을 '사상가'의 위치에 둔다.

선생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한마디로 '관계론적 인간학'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저자들은 생애의 파란만장함 탓에 사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책에서는 선비 정신과 마르크스주의, 동양 사상을 신영복 사상의 원류로 보았다. 가계로 전승된 영남 유림의 선비 정신, 대학 이후 식민지 반봉건 사회를 극복할 문제의식에서 탐색한 마르크스주의, 더불어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성찰적 관계론이라는 것이다.

<둘레책·1만9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루 ru 김투이 지음·운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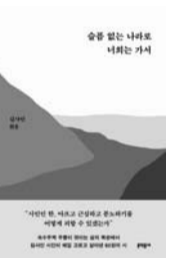


캐나다 '총독문학상' 수상작, 프랑스 '에르테엘-리르 대상' 수상작, 2018년 뉴 아카데미 문학상(대안 노벨문학상) 최종 후보작. 베트남 보트피플에서 국제적 작가로 발돋움한 김투이의 소설 '루 ru'는 고통과 절망을 헤쳐나간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다. 김 투이는 베트남 사이공에서 태어났다. 10세 때 가족과 함께 보트피플로 떠돌다가 1979년 캐나다에 정착했다. 변호사, 식당운영, 요리 연구가로도 활동하다가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루 ru'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현재까지 25개 언어로 번역됐다.

'루 ru'는 베트남 언어로 '자장가'라는 뜻이고 프랑스어로는 '실개천'의 의미가 있다. 또한 '눈물, 피, 돈의 흐름'을 뜻하기도 한다. 소설은 '평온함'을 뜻하는 안 띠이라는 이름의 베트남 소녀가 고국을 떠나 캐나다 퀘벡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다. 주인공 부모는 난민 수용소에서 이주지로 퀘벡을 선택한다. 어린 소녀와 가족들은 차고에서 사촌들과 재봉틀을 돌리며 방과 후에는 불법으로 강남콩 농장에 가는 트랙에 올라 탄다. 주인공 안 띠는 나라가 둘로 분단된 베트남 시절의 이야기, 난민으로 캐나다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마치 '실개천이 흐르듯, 자장가를 부르듯' 차분하고 담담하게 풀어낸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로지 삶의 의지로 극복해야 했던 여정이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베트남에는 "인생이라는 싸움에서는 슬퍼하면 진다"는 속담이 있다. 소설은 운명을 감내하며 강인한 힘으로 극복해낸 베트남인들의 역사라 해도 무방하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김사인 지음



김사인 시인은 시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운다. 그렇진대 시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이 처한 시대와 못 묵음들의 열망에 깊이 사무쳐, 뜨겁게 때로 쉽게 울고 부르짖는자, 요컨대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잘' 우는 것으로 본분을 삼는 자이다."

김사인 시인이 말한 "잘 우는 것으로 본분을 삼는 자"는 시대에 대한 추수를 드리우면서도 내면을 향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기울이는 이다. 김 사인이 이번에 엮은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일 고른 시 82편을 담았다.

이 시기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며 한국을 도발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를 일삼았던 때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구속 등 헌정사의 파란이 겹치는 시기이기도 했다.

시인은 다산 정약용의 '시대를 아파하고 분노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라는 언명을 품고 한 편 한 편 시를 읽으며 소감을 덧붙였다. 겨울의 끝자락, 그럼에도 한기가 남아 있는 2월의 어느 날에는 이성부 시인의 '봄'을 읽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없었을 때에는 너는 온다"라는 시를 읽다보면 시대를 초월해 전해오는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책에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1919년 청년들이 부른 노래 '광복가'부터 신채호 한시와 릴케, 자크 프레베레의 시 등을 아우른다. 시인은 말한다. "마음에 사무치는 바가 말과 글은 읽으면 그것이 바로 시다. '시'를 시용한 겉모양이 시가 아니라, 안의 사무침이 시인 것이다." <문학동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더 팩토리 조슈아 B. 프리먼 지음·이경남 옮김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공장은 엄청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지만 한편으로 계급갈등과 환경오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주범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장은 오랫동안 다양한 사건의 중심에서 현대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공장이 생산한 과거가 현재의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공장이 어떤 미래를 짊어질 것인가를 담은 '더 팩토리'가 출간됐다.

뉴욕시립대학교 킨스칼리지 역사학 교수인 저자 조슈아 B. 프리먼은 공장이 어떻게 산업화에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다룬다.

18세기 영국의 섬유공장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20세기 미국과 동유럽, 소련의 거대한 철강공장과 자동차공장을 거쳐 오늘날 스니커즈와 휴대폰을 만드는 중국과 베트남의 거대 공장에 이른다. 저자는 또 마르크스와 엥겔스, 찰스 디킨스, 헨리 포드, 스탈린 등과 같은 선구자들의 공장과 사회 발전에 관한 논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제조업과 정치사회의 관계를 파헤친다. 또한 찰스 실라, 마거릿 버크 화이트, 찰리 채플린, 디에고 리베라 등 당대 예술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공장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가들의 영혼을 자극한 뮤즈'로서의 공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한다.

책은 1장 자이언트 공장의 탄생, 2장 살아 있는 빛, 3장 강철의 시대와 문명의 진보, 4장 공장에 대한 예언과 예술, 5장 사회주의와 공장, 6장 산업화의 공동 요건, 7장 21세기 폭스콘 시티 등으로 구성됐다. <시공사·2만6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such as '나주산약초', '향촌', '우영생기원', '동양철학원', '다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三代(삼대)원조 나주공방', '황금세차장(주)', '함께와들개', '박당화랑', '석당화랑', 'O.K.당구장', '완도전북',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양지공인중개사',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진주공방', '청강창호', '고전방', '광주갤러리경매장', and '신신예술의집'.